

SPECIAL SUNDAY
특별선교주일

연합감리교 구호주일



열린 가슴. 열린 마음. 열린 문.
한인연합감리교회®

연합감리교 구호주일

연합감리교구호위원회의 80년 역사는 우리가 인간의 고통을 덜어주는 “선한 일을 위해 창조되었다”(에베소서 2:10)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구호위원회는 전쟁, 시민 소요 사태, 폭풍, 산불, 기근 또는 홍수의 영향으로 인한 사람들의 고통에 우리를 대신하여 대응하며, 재난에 압도된 채 그들 스스로는 일어설 수 없는 위기에 처한 개인, 가정, 지역 사회를 돕습니다.

“연합감리교회가 운영하는 일부 클리닉은 물이 부족한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지역의 여성들은 출산 직후 산후조리 병원에 있으면서도 몇 마일을 걸어 물을 길어오라는 요구를 받습니다. 빗물 수집 시스템의 설치하는 우리의 보건 상황에서 물을 모으는 어려움을 덜어줍니다.”

- 다마스 루시마 박사, 콩고 민주 공화국 감독구 보건 총괄 코디네이터

“홀딩 협회(Holding Institute)와 같이 국경 근처에서 이민자 공동체들을 섬기는 단체들은 매우 더운 지역에서 이와 같은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많은 전기를 필요로 하며 높은 전기요금을 부담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태양열 에너지를 통해 그들의 부담을 줄이는 것은 홀딩이 해결하려는 기후 문제를 오히려 악화시키는 온실가스 배출을 늘리지 않고도 이민자를 돕는 단체들의 사역이 더 성장하게 합니다.”

- 제니 필립스 목사, 세계선교부 환경 지속 가능성 수석 기술 고문

“우리는 두세 대의 재봉틀을 구매하여 젊은이들에게 마스크 만드는 방법을 가르치려 합니다. 이를 통해 그들과 가족들이 도움을 받을 것이고, 더 나아가 그들이 마스크를 판매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기술은 전염병이 지나간 후 미래를 향한 투자입니다.

- 두플란 다니엘, 선교사, 브라질 카노아스에서 아이티 공동체 사역



열린 가슴, 열린 마음, 열린 문.

한인연합감리교회®

연합감리교 구호주일

연합감리교구호주일은 교단 내 모든 교회가 동참하여 지원하는 여섯 개의 특별선교 헌금주일 중 하나입니다. 연합감리교구호위원회는 위기를 맞은 지역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활동하는 연합감리교회 산하의 구호단체입니다. 특별선교사업을 명시하여 헌금하는 경우, 우리가 드린 금액 100%가 지정된 선교사업을 위해 직접적으로 사용됩니다.

예를 들면 구호위원회와 세계선교부는 보건 전문가, 선교사, 재난 지원 전문가, 기독교 지도자들과 협력하여 “사랑 안에 자택 대기(Sheltering in Love)”라는 이름의 캠페인을 통해 코비드-19위기에 세계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필리핀에서부터 펜실베이니아, 또 브라질에서부터 브룬디에 이르기까지, 구호위원회는 건강보험, 음식, 위생 혹은 고용 안정 등의 인간이 가진 매일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일했습니다.

구호위원회는 지역 교회, 연회, 및 비영리 단체들이 그들의 지역사회와 함께 선교사업을 감당하고 또 어려운 시기에 가장 취약한 이들의 필요에 대응하도록 준비시킵니다.

구호위원회는 단지 단기적 긴급 상황에만 대응하지 않습니다. 지역 내 단체 및 교회와 연합감리교회 봉사자들과 함께 일 하면서 피해를 당한 지역사회와 관계를 구축하고 재난 후 수년 동안 그들의 재건 과정을 돕습니다.

구호위원회가 이러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오늘 연합감리교구호주일에 수백만의 연합감리교인이 함께 드리는 선교헌금 덕택입니다. 자원봉사자들을 교육하는 일에서부터, 사무실의 전기세 등의 운영비용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드리는 특별선교헌금은 그들이 재난에 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